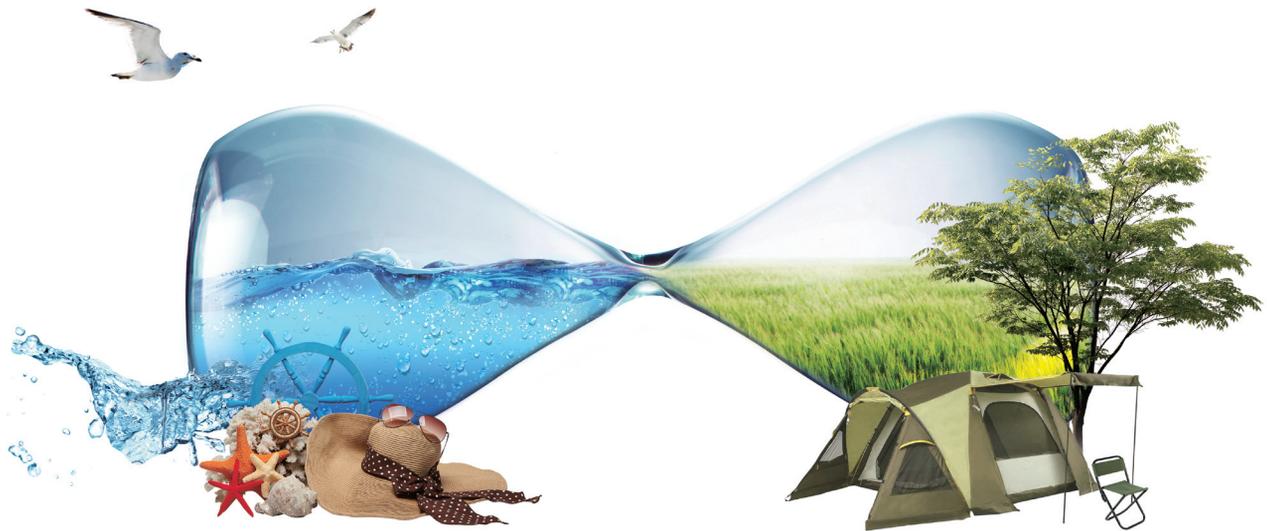


MIRZINE

2016 Vol. 41 _ 여름호

Dynamic & Static





까만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빛은 뚜렷해진다
가만가만
별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된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움직임을...

MIRZINE

2016 SUMMER / VOLUME. 41

•••
Part 01

미르 in

04

Intro

다른, 다르지 않은

06

Theme Column

역동적이거나 혹은 정적이거나

08

미르 + α

미르 피어페스타

가만히 그리고 가까이
우리가 나눈 마음의 온도

16

Interview

부천미르치과 송승희 원장

•••
Part 02

테마스토리

21

테마가 흐르는 페이지

dynamic & static

22

VS

Energetic vs Calm

26

스페이스

미술관 옆 동물원

32

이슈 & 트렌드

사용하는 즐거움

•••
Part 03

미르 together

34

NEWS

미르의 새로운 소식

39

우리 문화재 보존·복원 캠페인

국외소재문화재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여기, 희극을 사랑한 두 남자가 있다.
서로 다른 듯, 다르지 않은 두 남자에게 사람들은 시선을 빼앗겼다.

그중, 한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몸짓과 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관객들은
내 안의 슬픔과 자신의 슬픔을 찾아내지요.
슬픔뿐 아니라 즐거움, 놀라움, 걱정,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콧수염을 붙이고, 하얗게 분칠을 한 그의 얼굴은
스크린 속에서 늘 다이내믹하다.

다른,
다르지 않은

공감 [찰리 , 글리

다른 한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표정을 짓지 않아요.

재난이 닥쳤다고 해서, 슬프거나 힘든 표정을 짓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새롭지 않은 거죠. 저는 주인공의 표정이 사라질수록,
주인공이 덩뎅하게 행동할수록 관객의 웃음은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커다란 눈매가 인상적인 그의 포커페이스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관객들은 두 남자 모두를 선택했다. 그리고 사랑했다.
두 남자는 바로 찰리 채플린과 버스트 키튼.

관객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희극과 비극을 아우르는 예술가라 불린 찰리 채플린.
코미디에 무감각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며
‘위대한 무표정’이라 불린 버스트 키튼.

서로 다른 매력으로 무성 코미디의 황금기를 이끈
두 남자의 영화에 대한 열정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회자되고 있다.

사진출처_ 네이버 영화





역동적이거나 혹은



오후 세 시는 내 삶의 기준점이다. 나의 하루는 오후 세 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오후 세 시를 기점으로 오전에는 책을 읽거나 자료 정리를 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세 시 이후로는 외부활동을 통해 사람과 만나는 활동적인 시간을 갖는다. 십 몇 년을 그렇게 보냈다. 돌이켜보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동적인 힘과 정적인 힘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 나를 지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양궁 선수들이 과녁을 향해 제대로 활을 쏘려면 몸과 마음이 하나인 듯 집중해야 한다. 꿈틀거리는 근육의 힘을 완전한 정적 상태로 만들어야 화살이 최고의 목표를 찾아간다.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것은 움직이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깊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활을 잘 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믿는 것이다.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더라도 활의 시위를 제대로 놓을 때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날리는 것이다.

활시위를 당길 때 사람의 눈은 목표를 보고 있다. 하지만 화살의 눈은 목표보다 위쪽을 향해 있다. 오랫동안 활을 쏘면서 터득한 힘의 방향을 믿기 때문이다. 화살이 날아간다. 목표만을 보고 움직이는 고요한 상태이다. 상승곡선을 그리며 활이 날아가는 동안 과녁 역시 가장 정적인 상태에서 활을 기다리고 있다. 가장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는 화살 축을 위해 가장 강한 몸 상태를 만든다. 그래서 움직이는 화살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 과녁은 중심이라는 힘의 동력을 내려놓고 다시 정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활이 과녁과 합치된 것은 또 다른 균형의 합일점이라 할 수 있다.

정 · 적 · 이 · 거 · 나

글 _ 유정희(수필가)



삶도 그러하다. 삶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날아갈 때는 오직 한
곳만을 보게 된다. 삶이 완성될 때까지 움직이는 내 몸의 동적
인 힘과 정적인 힘의 조합이, 세상을 이어가는 동적인 힘과 정
적인 힘, 그 외부의 힘과 맞물렸을 때가 가장 균형을 이룬다.



몸의 과녁은 방향을 찾아가고 마음의 과녁은 내 몸을 다스린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가장 움직이고 싶을 때이다. 기준점은 원래 하나의 선 위에 있는 것이다. 기준점에
서 정적으로 움직이거나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균형이 한 몸이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항상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시간’은 ‘무엇을 해도 항상 앞서거나 항
상 빠른 시간’이기도 하다. 그것이 나에게서는 오후 세 시였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길 위에서 움직인다. 역동과 정적을 반복하며... 일에서 희열을 느끼면 일
에 지쳐 있어도 역동적이다. 휴식을 취해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건 정적인 고
요함이 아니다. 역동성과 고요함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배합이 중요하다. 그러니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배합을 찾아내야 한다. 최상의 조합은 역동성과 고요함이 함
께 어우러져 균형을 잡는 것이다.



먹고 · 즐기고 · 화합하라

Play · Eat · Enjoy · Relax

미르 피어페스타



Play, Eat, Enjoy, Relax!

미르인들을 위한 축제가 열렸다.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미르인들은 말 그대로 놀고, 먹고, 즐기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히 즐기지만 하는 축제에서 나아가, 그야말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축제의 기록을 담았다.





뜯짚 하기 좋은, 여름날

올해는 지금까지와는 좀 달랐다. 단합을 주목적으로 하던 '용오름' 가요제 형식에서 벗어났다. 미르인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제의 구성을 달리했다. 그래서 축제명도 'PEER FESTA'다. 'Play, Eat, Enjoy, Relax'의 앞글자를 따서 지었다. 부제는 뜯짚 하기 좋은 날! 행사장도 화려하게 꾸몄다. 알록달록한 가랜드와 나이트 전구, LED 풍선 등이 축제에 활기를 더했다.

미르의 축제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풀밭 위에 돛자리를 펴고 눕는다. 하늘을 보며 휴식을 취한다. 걸으면서 돌아다니는 시간도 즐겁다. 미니언즈 캐릭터, 석고동상, 미술, 풍선아트 등 다양한 어트랙션을 보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캐리커처 및 캘리그라피, 솜사탕아트, 타로점, 네일숍 등도 매력적이다. 배가 고프면 푸드 트럭으로 향하면 된다. 피자, 타코야끼, 츄러스, 분식 등 갖가지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먹을레스토랑'에서는 수준급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총 45개 부스로 이루어진 '살레마켓' 장터에는 액자, 인형, 화분, 액세서리, 가방, 향초 등 감각적인 수공예품이 펼쳐져 시선을 사로잡았다. '놀래월드'도 마찬가지. 해머, 인형뽑기, 다트, 룰렛, 타가디스코, 미니바이킹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목이 집중된 코너는 '미르가요제'다.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된 가요제에는 총 16개 병원에서 23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으로 무대를 채워준 미르인들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수상 여부를 떠나 모두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가요제를 축하하기 위한 가수 공연은 이번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 1부에는 몽니, 고고보이스, 민크그레이가 2부에는 노라조, 스위트소우가 신나는 무대를 선보였다.

발걸음이 달는 곳마다 새로운 테마가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가요제와 공연에
심심할 틈이 없어요

어울림의 또 다른 이름, **PEER FESTA**

원장부터 직원까지, 약 780명의 미르인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졌던 피어페스타. 짧은 시간이었지만 축제를 즐기는 동안 미르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팀워크를 다지며, 에너지를 충전했다.

류경호 미르치과네트워크 대표는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동시에 조직 몰입도와 주인의식 또한 고취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미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는 피어페스타를 발판 삼아, 참신한 병원 문화를 확립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다.



가만히 그리고 가까이

우리가 나누는
마음의
온도

해의의료봉사로 나눔을 실천한 지 어느덧 11년째, 2016년 올해는 네팔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팔인들을 만나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동안 나눔의 기쁨은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했던 여정, 4박5일



START

미르해외의료봉사

미르해외의료봉사단의 첫 진료는 생크후 폴리텍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진료소를 세팅하고, 환자를 맞았다. 치과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대부분 그렇듯 네팔의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다소 긴장한 얼굴로 진료를 받는 사람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 가득한 표정은 미소로 바뀌었다. 진지한 눈빛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의료진들의 마음이 전해진 듯했다.

다음 날, 생크후 폴리텍대학보다 조금 더 먼 곳에 있는 나가르콧 학교로 진료소를 옮겼다. 진료소를 세팅하는 동안 어느새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우리의 손짓에 쭉스러운 듯 미소만 짓다가도, 이내 웃음을 터트리며 가까이 다가왔다. 별처럼 반짝거리는 아이들의 눈망울은 잠시 지켜있던 우리에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나가르콧 학교에서는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었다. 풍선아트,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종이액자 만들기, 네일아트까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즐거워해준 아이들에게 오히려 고맙다. 어느새 가까워진 우리들...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네팔인들과 미르해외의료봉사단이 나눈 마음의 온도는 같아졌다.

진료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원숭이 사원'으로 유명한 '스외암 부나트'에 들렀다.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스스로 존재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1979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의 위엄이 느껴졌다. 끝으로 여행자의 거리로 알려진 '타멜거리'를 거닐며 네팔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지난 5월 20일, 미르해외의료봉사단은 네팔에 도착했다. 세계 각국에서 도움을 주고 관심을 기울였지만 1년 전 일어난 대지진의 여파는 아직도 남아있었다. 숙소로 이동하는 중간중간 붕괴된 건물들이 우리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마음에 우리의 방문이 작게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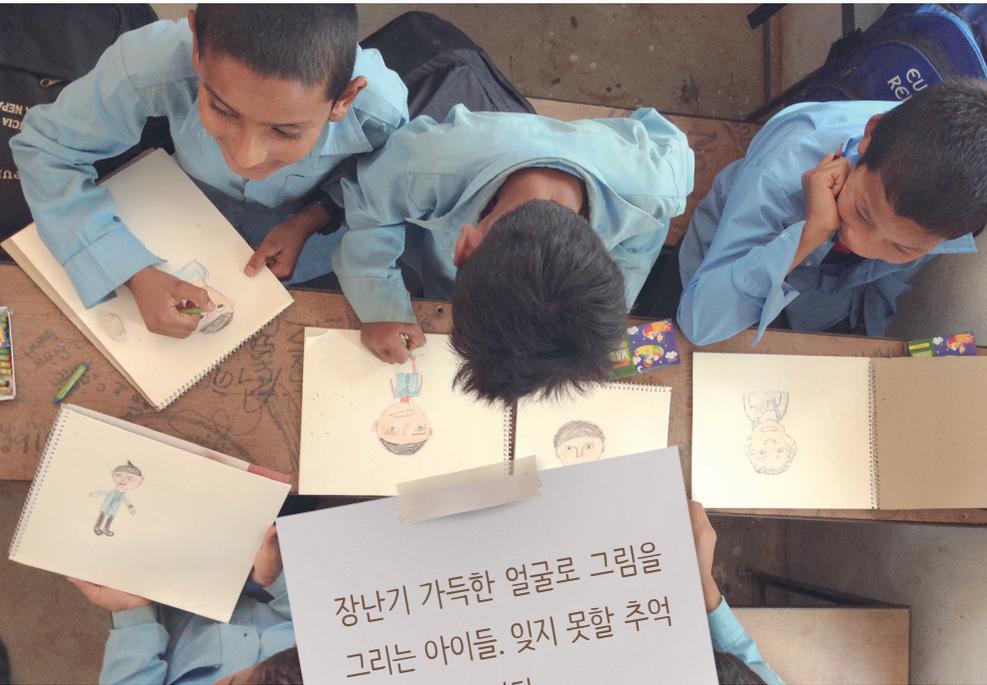
🗝️ 해외봉사 일정

- 20일 네팔 트리부반공항 도착 ▶ 네팔 마을하우스 숙박
- 21일 생크후 폴리텍대학 웰컴행사 및 진료
- 22일 나가르콧 학교 진료 및 이벤트
(풍선아트,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종이액자 만들기, 네일 등)
- 23일 나가르콧 학교 진료 및 학교 행사
- 24일 티벳탄스투파, 원숭이 사원, 여행자의 거리 투어 후,
트리부반공항 도착
- 25일 인천공항 도착 ▶ 귀가



치과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대부분 그렇듯 네팔의 환자들도 마차가 지었다. 다소 긴장한 얼굴로 진료를 받는 사람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 가득한 표정은 미소로 바뀌었다. 진지한 눈빛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의료진들의 마음이 전해진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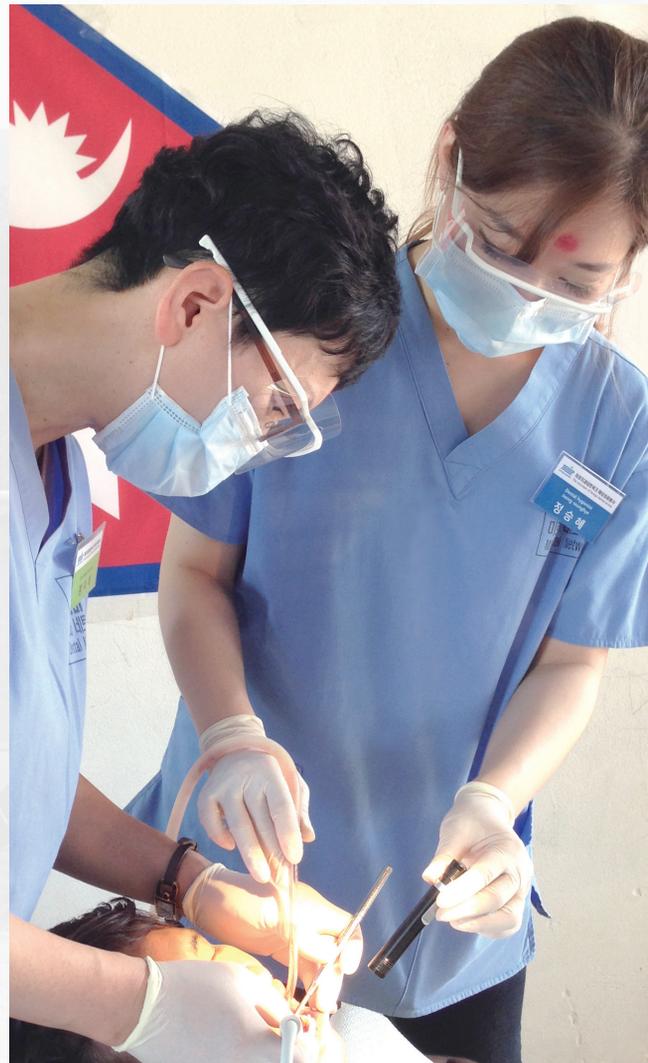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잊지 못할 추억
으로 남았습니다.



가만히 그리고 가까이
우리가 나눈
마음의
온도

해맑은 아이들을 카메라에
담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MIR NETWORK

녹음(綠陰)이 짙어지는 유월의 어느 날. 산들바람을 맞으며 도착한 부천미르치과에서 화사한 미소가 인상적인 송승희 원장을 만났다. 인터뷰 내내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고, 어쩐지 의학보다는 감성적인 국문학에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말이 떠올랐다.

더불어 숲을 이루는 것

부천미르치과 송승희 원장



함께해서 더 좋은 사람들

2002년도에 개원한 부천미르치과는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해왔기 때문일까. 부천미르치과의 의료진들은 ‘함께’를 강조한다.

“아주 작은 손목시계도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부품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면 시계의 가치는 떨어지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내’ 치과가 아니라 ‘우리’ 치과잖아요. 서로 맞물려서 함께 가야 하는 거죠.”

남다른 팀워크를 자랑하는 부천미르치과. 화합을 도모하는 방식도 남다르다. 2년에 한 번씩, 병원 전체가 시간을 내어 해외여행을 가는 것. 지금까지 괌, 사이판, 필리핀, 푸켓, 말레이시아에 다녀왔다. 휴양을 하면서, 레저를 곁들이니 팀원 간에 사이는 저절로 좋아진다. 팀워크가 좋아지면 병원 전체에는 활기가 생긴다. 직원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실제로 여행을 다녀와서 일상에 복귀했을 때, 업무 효율이 더 높아졌다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도 잘 마련되어 있다. 부천미르치과의 여직원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법적기준에 맞게 육아휴직을 간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막상 쓰려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에 부천미르치과에서는 당사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 당연한 듯하지만 당연하기 힘든 부분에도 섬세한 배려가 담겨 있다.



부천미르치과에서 강조하는 ‘함께’는 환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일맥상통한다. “병원이란 곳은 원래 오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치료를 하러 왔는데, 제대로 치료가 된 것 같지 않으면 억울하죠. 저는 환자 분들이 우리 치과를 다녀간 후에 억울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치료의 질, 서비스, 비용 모든 면에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치과를 나서는 모든 분들이 합리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느끼길 바란다는 송승희 원장. 그 외에도 부천미르치과는 ‘감염·예방’에 특별히 신경 쓴다고.

“우리 치과에서는 감염에 대해 미리 준비했어요. 모든 기구도 개별 포장을 실행했죠. 외부강사를 초대해서 직원들과 의사들이 ‘감염 예방교육’도 받고요. 예방 치료실을 운영하면서 환자 분들께는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는 만큼 청결이 중요한 병원이지만 이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병원의 입장에서는 투자일 수밖에 없는 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천미르치과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부천미르치과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도 ‘함께’한다. ‘함께’에 ‘나눔’이 더해진 것이다. ‘사회봉사’를 설립 이념으로 세운 부천미르치과는 개원 초기, 부천시청 복지과에 직접 문의해 후원자와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다. 그후 지역의 청소년센터 1388과 다문화센터와 인연이 닿아 소외 계층의 치과 치료를 지원했다.

‘혼자만’을 외치는 요즘 시대에 ‘함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부천미르인들. 정말이지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사람들이다.

66

병원이란 곳은 원래 오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환자 분들이 우리 치과를 다녀간 후에 치료의 질, 서비스, 비용 모든 면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99





◀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마음

오랫동안 치과의를 해온 만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다는 질문에 송승희 원장은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사뭇 진지한 얼굴로.

“좋은 경우들은 참 많아요. 치료 후에 감사를 표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자폐아들을 몇 명 치료했거든요. 그 치료가 생각 이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일반 어른들도 치과를 무서워하는데, 자폐아들은 그 정도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부모님이 옆에서 손을 잡아줘도

빨리 돌아가는 치과기계를 보면 아이들은 무서워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치료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컨트롤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은 제 역량을 벗어나버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자폐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마땅치 않다고 말하며, 안 쓰러워하는 송승희 원장. 의사가 아닌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서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또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느껴졌다.





결국엔, 행복

송승희 원장은 현실이 버거울 때 종종 여행을 떠나곤 한다. 여행을 가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을 돌아보게 됐을 때,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현실에 대한 만족과 행복도 다시금 일깨워진다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이 결정이 옳은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비싸고 좋은 물건도 크게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남는 건 사람과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과의 관계,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말이죠.”

송승희 원장은 ‘슬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조금 할 필요가 없다. 주변의 것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미르인들과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나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다

여의사로서의 그녀의 삶도 궁금했다.

“20대에는 학업에만 열중했어요. 곧바로 수련의로 넘어왔고요. 당시 제가 있던 병원에서 첫 여의사였어요. 여의사에 대한 편견이 심했죠. 진료를 하러 가도, 저를 옆에 세워두고 의사를 찾는 환자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여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날을 세우고 살았어요. 완벽해야 하고, 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요. 당시에는 나로 인해서 여자 후배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30대에는 더 힘들었죠. 육아와 함께 병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40대에 접어들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 그때야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치열하게, 너무 아프게 살았던 것 같아요.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가 생활신조였는데. 지금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최선을 다하자’가 제 좌우명이 됐어요.”

가족, 동료, 친구들이 있었기에, 자신의 길을 올바르게 걸을 수 있었다는 송승희 원장. 그녀는 ‘나’와 ‘우리’ 모두 중요하기에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하루하루 바쁜 중에도 송승희 원장은 ‘나’와 ‘우리’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함께’이기에 더욱 즐거운
부천미르 워크숍



테마가 흐르는 페이지

서로 다른 감각,
하나로 이어지다

일렁이는 물결과 유유한 하늘이 만나는 처럼
하나의 풍경이 만들어진다

여름밤을 뜨겁게, 두 손을 머리 위로



박명수, 류승범, 김민준 등 디제잉에 빠진 연예인들을 보며, EDM의 매력을 몸소 느껴보고 싶었던 E군. EDM콘서트 티켓이 생겼다는 친구의 말에 당장 주말 스케줄을 비웠다. 드디어 주말 밤! E군은 설레는 맘으로 콘서트장을 찾았다.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와 화려한 조명, 사람들의 함성만으로도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중독성 짙은 사운드와 강렬한 비트에 열광하는 관객들. 어색한 것도 잠시. E군도 다른 사람들처럼 뛰어보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음악에 몰입할수록, 스트레스는 저절로 사라졌다.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며, 땀 흘린 그날. E군은 그동안 묻어두었던 열정을 되찾았다.

Energetic

Calm

잔디밭에 누워, 서정을 듣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나들이를 가기로 한 C양. 산이나 계곡도 좋지만 이번만큼은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음악과 함께하는 소풍'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잔디밭에 앉아 서정적인 인디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그녀가 꿈꾸던 나들이였다. 돛자리, 잡지책, 도시락을 준비해 만난 C양과 친구들. 햇볕이 들지 않는 나무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서로 안부를 묻으며, 각자가 싸운 도시락을 나눠먹었다. 해질 무렵, 공연이 시작되고 여름날과 어울리는 잔잔한 음악이 주위를 감쌌다. 앉아서 음악을 듣는 사람, 돛자리에 누워 별을 보는 사람. C양은 음악을 들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혼자 사색에 빠져보기도 했다. 편안한 분위기 덕분일까. 그동안 지쳐 있던 몸과 마음이 릴렉스되는 것 같았다.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헬스만 3년째 해온 30대 E씨. 기초체력은 충분히 다졌으니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고 싶어졌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크로스핏이 대세라고. '여름 몸짱이 되겠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E군은 크로스핏에 도전했다. 다양한 동작을 반복하며 무산소와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데, 이게 웬일?! 땀을 뻘뻘 흘리며 한계에 다다르니 오히려 상쾌해진다. 그 순간만큼은 잡념도, 근심도 사라진다. 주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니 지루할 틈이 없고, 여러 명의 멤버들과 같이 하는 운동이라 경쟁심이 생겨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장점이다. 운동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니, 또 다른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바로 크로스핏 훈련자들이 참가하는 '스파르탄 레이스'에 참가하는 것. 목표가 생긴 후, 크로스핏에 대한 E씨의 의지는 더 강해졌다.

Energetic

Calm

차근차근 천천히 뻗뻗해도 괜찮아

몸무게는 적게 나가지만 평소 자신의 체형에 불만이 많았던 30대 C씨. 비울 좋은 직장 선배의 조언에 따라 요가를 배우기로 했다. 유연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였기에 요가를 하기 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요가 동작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따라 하면 된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원에 나간 C씨. 매일 요가 동작을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 유연성이 생기는 건 물론 구석구석 숨어 있던 굳살도 빠지기 시작했다.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쓰는 동작 덕분에 뭉쳐 있던 근육이 풀리고, 한 쪽으로 틀어져 있던 골반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몸의 밸런스도 좋아졌다. 몸이 건강해진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음악과 함께 명상을 하니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말하는 C씨.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불면증도 함께 사라졌다.



 미술관

옆

동물원 

서로 다른 세계를 담고 있는 미술관과 동물원.
어디로 갈까,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결국엔 이어지고야 마는
두 세계로 발을 내디뎠다.

장소 _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 서울동물원



어떤 길은
갈라지지 않고 한 길로만 계속되는가 하면,
두 갈래 혹은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

또, 어떤 길은 Y자로 되어 있어
한 곳에서 왔다가 둘로 갈라지고
또 양쪽에서 왔다가도 한 곳에서 만난다.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의 모티브가 된
그 길처럼 말이다.



가만하 작품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주위는 조용해지고 '나'는 자연스럽게 작품 속으로 빠져든다. 작가의 의도를 헤아리거나, 작품 하나하나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고요 속에 머무르면서, 그저 느끼면 된다. 작품과 내가 만나는 오롯한 시간을.





Information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막계동)

홈페이지

· <http://www.mmc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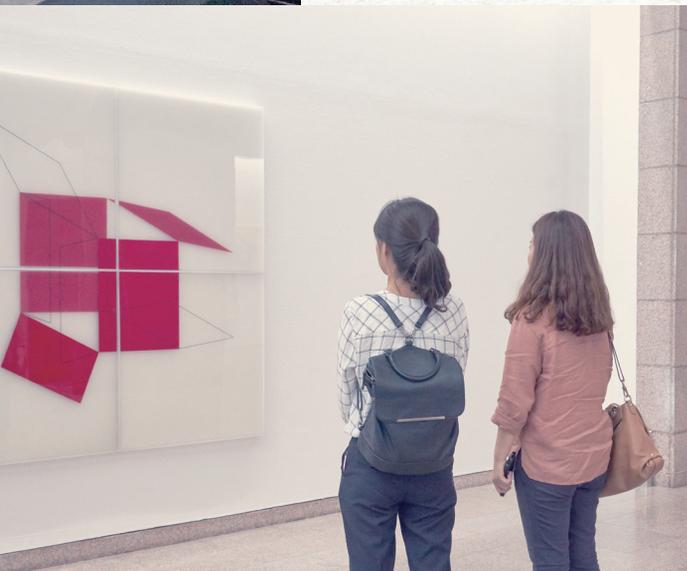
'고요' 속에 머무름

_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소음(騷音)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명백해지는 것들이 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정박해 있는 듯한 미술관의 풍경이 그러했다. 도시의 소음이 빗겨나간 푸른 정원.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전시작품들이 마침맞은 자리에서 나들이 온 이들을 맞이한다. 멀리서 보고, 가까이에서 한참을 더 보아도 싫증나지 않는다.

산책하듯 여유롭게 걷다보니, 전시관에 도착했다. 옛 성곽과 봉화대, 전통마을의 담장과 계단 등 전통양식을 가미한 건물 외관은 안정감을 주면서도 여전히 독특한 정취를 풍긴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충충이 쌓인 TV 모니터가 눈에 들어온다. 비디오아트 창시자인 백남준의 작품 <다다이선>이다. 이 작품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했다. TV 모니터는 총 1003대로, 개천절인 10월 3일을 상징한다고. 천장까지 우뚝 솟아 있는 <다다이선>을 보려면 하늘을 볼 때처럼 고개를 들어 올려야 한다. 소리 없이 반짝이는 빛이 새삼 눈부시다.

원형 전시장(랩크오어)을 중심으로 전시실은 동서로 나누어진다. 아치형 입·출구와 나선형 경사로까지 모든 곡선이 아름답다. 총 8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원색의 색채와 기하학적 조형이 두드러진 조각품. 정적이면서도 강렬한 한국화. 가만히 작품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주위는 조용해지고 '나'는 자연스럽게 작품 속으로 빠져든다. 작가의 의도를 헤아리거나, 작품 하나하나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고요 속에 머무르면서, 그저 느끼면 된다. 작품과 내가 만나는 오롯한 시간을.





'움직임'이라는 흐름

_ 서울동물원

미술관에서 나와 10분 정도 걷다보니 동물원 입구에 다다랐다. 문득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코끼리가 생각났다. 커다란 몸에, 깊은 눈을 가진... 코가 손이라는 코끼리. 긴 코로 먹이를 받아먹거나 물을 뿌리는 코끼리를 보고 있으면, 동물세계의 신비함이 느껴졌다. 생명이 가진 '역동(力動)'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건 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단은 걸었다. 걷지 않고는 동물원 안에 숨겨져 있는 묘한 풍경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아프리카관. 얼룩말과 시타통가는 뛰어놀고, 기린은 나뭇잎을 뜯어먹느라 정신이 없다. 바바리양은 순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굵은 뿔이 인상적이다. 한가한 오후, 낮잠을 즐기는 사자와 호랑이. 자는 동안에도 맹수의 위엄이 엿보인다.

다음은 대동물관. 코뿔소와 코끼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느릿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코뿔소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으니, '코뿔소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노랫말이 떠올랐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코끼리를 보기 위해 전당대에 올랐다.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코끼리는 당연히 아니지만, 어쩐지 정감이 갔다. 코끼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관람객들은 두 눈이 동그해졌다. 아이들, 어른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동물원의 반도 둘러보지 못했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고릴라와 오랑우탄을 뒤로 하고, 입구로 돌아왔다. 분홍빛이 날개 짓하는 홍학사에서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우아한 발걸음으로, 세차게 날개 짓하는 홍학을 끝으로 동물원에서의 하루는 마무리됐다. 동물원 곳곳의 '움직임'에 따라, 시간이 흘러간 듯하다.



Information

위치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홈페이지

• <http://grandpark.seoul.go.kr>



커다란 몸에, 깊은 눈을 가진... 코가 손이
라는 코끼리. 긴 코로 먹이를 받아먹거나
물을 뿌리는 코끼리를 보고 있으면, 동물
세계의 신비함이 느껴졌다. 생명이 가진
'역동(力動)'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건
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용하는 즐거움

!t Item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야외에서.
혼자 혹은 여럿이서 시간을 보낼 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았다.



허그라이트

목에 거는 형태로 되어 있어 두 손이 자유롭다. 한 곳을 집중해서 비추는 집중형 조명과 주변을 볼 수 있게 하는 분산형 조명으로 나누어져 있어, 활용도가 높다. 야간산행이나 트레킹처럼 움직임이 활발한 활동을 할 때 손전등 대신 사용하면 편하다. 여름밤의 낭만을 즐기며, 조용히 책을 읽을 때에도 독서등 대신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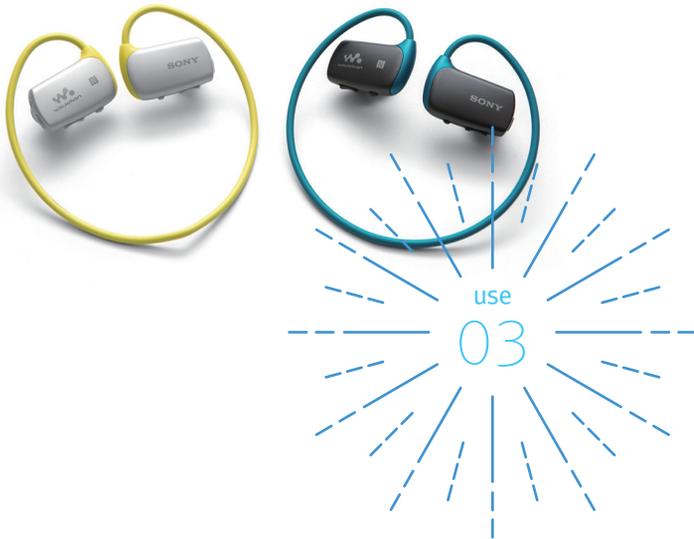


미니빔TV

빔 프로젝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미니빔TV.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휴대가 편리하다. 유선과 무선 겸용으로 되어 있어, 어디에서나 쉽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특징.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며 여유를 즐기고 싶은 사람, 한여름 밤의 캠핑을 즐기며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스포츠형 워크맨

방수 기능을 강화해 바다를 포함한 다양한 아웃도어 환경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형 워크맨이 등장했다. 수영 시에는 물을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고, 러닝 시에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한다. 주변음 모드를 설정하면 주변음을 수집, 음악과 함께 이어폰으로 전달되는데, 이를 통해 피트니스클럽이나 수영장, 공원 등에서 운동을 하는 중에도 옆사람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use
04



비즈니스 캐주얼 백팩

정장이나 캐주얼에 잘 어울리는 '비즈니스 캐주얼 백팩'이 인기다. 패셔너블한 디자인과 실용미가 조화된 백팩은 수트와 캐주얼에 두루 어울리고 노트북 칸막이와 수납공간이 다양한 것이 특징. 직장인뿐만 아니라 책과 다양한 과제 도구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대학생들이 메고 다니기에도 적합하다.



MIR

N | E | W | S

미르는 의료 및 사회봉사, 미르갤러리, 미르아카데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르의 소식을 전합니다.

미르교육

대구미르

▶ 6월 8일 _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육



목포미르

▶ 4월 14일 _ 소방 교육



▶ 5월 2일 _ 브레인데이(의식화 진정 시 응급상황 대처: 소아치과 팀장 이민영 / 간호사 이수정)



▶ 5월 9일 _ 개인정보 보호 교육
(보건복지부 연자 초청)



상무미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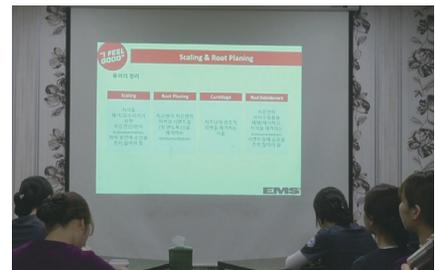
▶ 4월 29일 _ 감염관리 교육



전주미르

▶ 4월 12일, 26일, 5월 3일 _ 예방센터 구축화 세미나

▶ 4월 6일 _ 전직원 대상으로 'Scaling & Root Planing, Air Flow' 교육 (EMS코리아 이학규 팀장)



원장 및 사원활동

- ▶ 6월 17일 _ 전직원 대상으로 구강스캐너, CAD/CAM 디지털장비 세미나 (메가젠 디지털 장비팀)



- ▶ 6월 19일 _ 안규소 원장 총의치 강연회
- ▶ 6월 29일 _ 전직원 대상으로 T.B.I Method & Technique 세미나(진조앤 총괄매니저)

진주미르

- ▶ 4월 5일 _ 전직원 내규교육



- ▶ 4월 22일 ~ 6월 17일 _ '꼭 필요한 방화감염관리' 직원 온라인 교육

대구미르

- ▶ 4월 20일 _ Dr.정성국 '장애인의 날' 수상



- ▶ 6월 9일 _ 김연우 부장 '구강보건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전주미르

- ▶ 5월 6일 ~ 6월 17일 _ MBC라디오치과상담진행
 - 5월 6일 : Dr.박채희(성장기 치아교정)
 - 5월 13일 : Dr.박채희(부정교합)
 - 5월 20일 : Dr.김종환(스케일링)
 - 5월 27일 : Dr.박채희(중년 치아교정)
 - 6월 3일 : Dr.김종환(잇몸질환)
 - 6월 10일 : Dr.하선(임플란트 후 관리)
 - 6월 17일 : Dr.정희웅(노년층 구강관리)

- ▶ 5월 29일 _ Dr.정희웅 '임플란트 심으면 끝? 관리는 더욱 중요!'라는 주제로 닥터MBC 방송



- ▶ 6월 13일 _ 안혜라 과장(보존과 전문의) 진료 시작

진주미르

- ▶ 4월 5~6일 _ Dr.노창세 '멸균소독과 감염관리' 라는 주제로 진주보건대 강의

- ▶ 4월 11일 _ Dr.황준환 '임플란트수술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진주보건대 강의

- ▶ 4월 11일 _ Dr.권경민 '초진환자 치료계획 수립'이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강의

목포미르

- ▶ 5월 18일 _ Dr.이동균 'ENDO 원데이 핸드온 코스' 교육

원장 및 사원활동

원내 주요 활동

진주미르

- ▶ 4월 25일 _ Dr.노창세 ‘족두하악 장애 환자의 치료 I’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강의
- ▶ 4월 26~27일 _ Dr.허준용 ‘임플란트 1차 수술 및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주보건대 강의
- ▶ 5월 2일 _ Dr.노창세 ‘족두하악 장애 환자의 치료 II’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강의
- ▶ 5월 3~4일 _ Dr.조현규 ‘임플란트 2차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와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진주보건대 강의
- ▶ 5월 10~11일 _ Dr.김성수 ‘임플란트 보철 (인상채득 방법 및 상부구조의 종류)’이라는 주제로 진주보건대 강의
- ▶ 5월 24~25일 _ Dr.권경민 ‘임플란트 유지 및 관리, 합병증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주보건대 강의
- ▶ 5월 31일~6월 1일 _ Dr.허준용 ‘최신임플란트 경향’이라는 주제로 진주보건대 강의
- ▶ 6월 7~8일 _ Dr.허준용 ‘최신임플란트 경향’이라는 주제로 진주보건대 강의

목포미르

- ▶ 3월 24일 _ 신규 장비 도입(케어스트림 CS9300C CT)



- ▶ 3월 31일 _ 신안군 보건소에서 서비스 벤치마킹으로 본원 방문



- ▶ 4월 14일 _ 중국 메이자신 치과에서 벤치마킹으로 본원 방문



- ▶ 5월 5일 _ ‘병아리떼 쫄쫄’ 어린이날 행사 진행



- ▶ 5월 23일 _ 예방 2기 수료식



- ▶ 6월 18~22일 _ 7년차 직원 장기근속으로 4박 5일 오사카 여행



- ▶ 2016년~ _ 목포 축구센터 원정 훈련으로 정조국 선수 치료 진행



부천미르

- ▶ 6월 9일 _ 부천시 치과의사회 주최 '69제 행사 (구강캠페인 및 구강검진, 구치검사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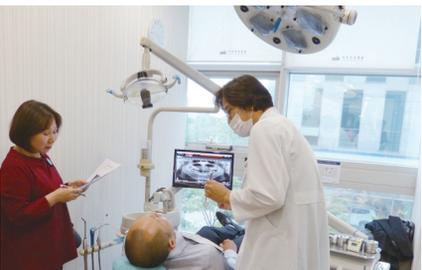


상무미르

- ▶ 4월 22일 _ 윤리초등학교 구강검진



- ▶ 5월 25일 _ 중국인 관광 진료



- ▶ 5월 31일 _ 승진대상자 독후감 발표



- ▶ 6월 14일 _ 경로당 구강검진



순천미르

- ▶ 4월 30일 _ 개원기념일 행사 및 병원 체육대회 진행



- ▶ 5월 5일 _ '병아리떼 쫓쫓쫓' 어린이를 위한 구강검진 행사 참여



전주미르

- ▶ 4월 12일 _ Dr.허선 '근영여자고등학교 구강검진' 실시
- ▶ 6월 3일 _ Dr.박채희 '평화초등학교 구강검진' 실시

진주미르

- ▶ 3월 29~30일 _ 진주보건대학교 직업탐방 1차
- ▶ 4월 5~6일 _ 진주보건대학교 직업탐방 2차



- ▶ 4월 21~27일 _ 방사선방어시설 보수공사
- ▶ 6월 21일 _ 발전기 시범가동
- ▶ 6월 25일 _ 수관소독

포항미르

- ▶ 5월 14~15일 _ 에어컨 청소
- ▶ 5월 24~28일 _ 공조기 청소
- ▶ 6월 2일 _ 실내 공기질 측정

후원 & 봉사

구미미르

- ▶ '사랑의 폐금' 모금액 700만원 구미시청 행복공동체에 기부



포항미르

- ▶ 4월 4일~10일 _ 포항미르치과병원 제7회 필리핀 의료봉사활동 실시



- ▶ 4월 초 _ 포항지역 31개 학교에 총 3050만원 장학금 전달



목포미르

- ▶ 6월 25일 _ KBS행복나눔의료봉사

문화행사

대구미르

- ▶ 6월 8일 _ 갤러리 미르 작가와의 만남 (최상용 작가 'MY LANDSCAPE')



**미르치과에서
'여름부채'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연 분홍빛 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에너지절약, 대한민국을 뛰게합니다!

미르치과네트워크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시원한 손부채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보존·복원 캠페인

국외소재문화재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미르치과네트워크는

지난 2014년부터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문화재의 보존·복원을 위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MOU협약을 맺고 국외소재문화재 보존·복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 지원 완료

콜레주 드 프랑스 한국학연구소 소장
고서 및 고서류 보관함 제작



2015년 ▶ 지원 중

필라델피아 미술관 '곽분양행락도'
복원 작업



2016년 ▶ 지원 중

스펜서 미술관 '곽분양행락도'
복원 작업



국외에 소재한 우리나라 문화재는 대부분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일본·중국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미르치과네트워크**는 우리 문화재가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재의 보존·복원을 위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을 통해 복원된 문화재는 12월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미르치과네트워크는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나아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왕실의 궁중장식화 - 곽분양행락도

일시: 2016년 12월 13일 (화)
~ 2017년 1월 29일 (일)

장소: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
왕실의 회화실



‘움직이는 인체’를 통해 인간 내면의 본질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에드가 드가.

그의 사진에는
역동적인 포즈의 모델들이 자주 등장한다.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의 작품.
모델들의 움직임은
멈춰진 공간 속에서 더욱 힘을 얻었다.

MIR, 행복한 미소를 향한 정직한 약속
the global standard

거제미르치과병원 거제아주미르치과병원 경산미르치과병원 구미미르치과의원 구미뉴욕미르치과의원 광주상무미르치과병원 광주첨단미르치과병원 대구미르치과병원 목포미르치과병원 밀양미르치과의원
부천미르치과의원 서대구미르치과의원 서울미르치과의원 수원미르치과의원 순천미르치과병원 안산미르치과병원 전주미르치과병원 진주미르치과병원 창원미르치과의원 통영미르치과의원 포항미르치과병원